

비만 오면 유독물질 몰래 방류 하남산단, 광주 환경오염 '주범'

폐유·폐수 등 방출...풍영정천을 7차례 물고기 집단 폐사
광주시·광산구 등 관리감독 방치...단속 실적 한 건도 없어
오염물질 유입 막는 저류시설 419억 들여 추진 효과 의문

하남산단 대표산단인 하남산단단지 광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등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일부 공장주들이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을 '풍영정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바람에 물고기들이 수시로 폐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광주시, 환경당국 등 관리·감독 주체들은 사실상 두 손 놓고 있다. 감독 허술로 8만여 수완지구 주민의 휴식처가 환경오염의 시각지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시가 방치대책으로 내놓은 수백억원짜리 완충저류시설 사업도 효과가 의문스러운데, 대표적 오염원인 폐유 관리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에서 붕어 등 물고기 수백 마리(70kg)가 폐사한 채 발견됐다. 물고기 폐죽음은 올해만 7번째다.

환경당국은 인근 하남산단단지 내 금형제조 업체에서 산성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가 비 오는 틈을 타 유독물질을 몰래 버린 정황이 드러나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풍영정천에서는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물고기 집단 폐사 또는 오염 물질 발견 신고가 접수됐다. 주로 비가 내린 날을 전후해 폐유나 페인트 등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5월과 8월 퇴적물 부패와 세제 원료 유출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했고 2015년 2건의 오염사고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장성 남면에서 시작해 14km에 걸쳐 하남산단~수완·운남지구~극락강으로 흘러드는 풍영정천의 오염으로, 인근 수완지구 주민 건강, 그리고 영산강 수질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단체들은 풍영정천 오염의 주범으로

하남산단 내 일부 공장을 지목하고 있다.

하남산단에는 현재 기계·금속, 자동차 및 부품, 섬유, 화학, 전기·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970여개 공장에서 3만2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공장주와 종사자들이 폐유 등 유독물질을 풍영정천 등에 몰래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광산구 등 관리 감독 기관에서 물고기 집단폐사 등이 발생할 경우에만 유출업체를 추적하다 보니 평소 소량의 유해물질을 수시로 버리는 업체까지 적발하고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 들어 이와 관련한 단속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다.

하남산단의 한 관계자는 "운이 나빠 물고기가 죽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요령껏 소량 유출하면 단속에 걸릴 일이 없다"면서 "폐유 등 유해물질 배출도 일정량을 넘을 경우 신고해야 하지만, 일부만 신고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귀띔했다.

느슨한 폐유 등 유해물질 처리 절차와 관리·감독기관의 무관심도 문제다.

실제 폐유를 기준으로 월 평균 50㎏ 이상을 배출하면 소재지 여부 등에 따라 관할 구청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신고·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업체에서 이른바 '셀프 신고'를 하는 형식이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풍영정천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방류했다가 물고기 폐사 등으로 적발된 업체 중에선 폐유 처리를 신고한 업체가 포함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오는 2021년까지 풍영정천에 419억원을 들여 3만t 규모의 완충 저류시설을 만들기로 했지만, 효과에 의문을 제



8만여 수완지구 시민들의 쉼터인 풍영정천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3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에서 유해물질 유출로 폐사한 물고기를 수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시는 저류시설을 산단 입주업체 빗물 관로와 연결해 강우 직후 빗물과 유독물질 유출수 등을 일시 저장하고,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염물질을 육안으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폭우 등으로 수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문병재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사업

주와 환경관리 담당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순회 간담회, 기업 윤리에 대한 특강도 실시했지만 또 사고가 발생해 어렵다"면서 "환경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81년 광산구 장덕동 일원 596만7000㎡ 부지에 조성된 하남산단은 서남권 내륙지역 중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구청서 흥기난동...광주 남구의원 사퇴

자신을 비판하는 내용의 팻말을 흥기로 훼손한 광주 남구의원 A 의원이 4일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A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께 의회가 입주한 구청 청사 1층 승강기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흥기로 팻말 2개를 조각난 혐의(재물손괴)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기소건의으로 송치됐다.

팻말은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A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설치했다.

남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은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소속 상임위원과 마찰 빚었던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문 제 삼았고, 노조는 해당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며 공식 사과를 요구해왔다.

A 의원은 오는 11일 의회 임시회 개최식에서 5분 발언을 이용해 입장 발표를 한 뒤 12일 자로 의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무서운 이웃 노인

"무시발언 했다" 70대 둔기로 60대 살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한 마을에서 6년 넘게 지내온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은 4일 "살인 혐의로 박모(73)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사이 담양군 A(67)씨의 집에서 A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대학교육까지 받은 A씨가 문맹인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년 전 이사는 A씨와 자주 왕래하며 행정업무 처리 시 A씨의 도움을 몇차례 받았고 A씨의 토

지 명의 이전 문제를 자신이 도와주기도 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그날도 토지 이전 문제를 논의하러 A씨 집에 찾아가셨나 나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집에 있던 둔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숨진 다음날 이웃집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웃집 주민을 불러 A씨를 발견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의 원한관계 등 주변을 탐문하던 중 박씨 집에서 범행에 사용했던 둔기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광양경찰, 남해고속도로 사망사고 뺑소니 40대 검거

남해고속도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은 "대형 트럭을 몰다가 사망사고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가범상 도주차량)로 김모(48)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오전 4시께 광양시 지점에서 1차 사고로 갓길에 나와 있던 김모(25)씨를 자신이 몰던 25t급 카고트

럭으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다.

당시 승용차가 사고로 전복돼 1, 2차 도로에 걸쳐 멈춰서 있었고 차 안에서 빠져나온 김씨가 갓길에 피해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차 앞 부분 조각과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범행 이틀 만인 지난 2일 오후 강씨를 검거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즉석만남 뒤 모텔서 200만원 든 지갑 들고 튄 40대 여성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했다가 돈만 챙겨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여·40)씨는 지난 5월 5일 새벽 2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정모(43)씨가 잠든 틈을 타

현금 200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도망쳤다는 것.

○...경찰조사에서 '3대' 부킹만남을 통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호감을 느껴 단둘이 모텔에 갔다고 밝힌 김씨는 "사위를 하고 나와보니 정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며 "순간 정씨의 지갑이 눈에 들어와 욕심이나 흘렸다"고 뒤늦은 후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부실 환경정책 비난 목소리

'풍영정천 사랑모임' 등 환경단체

광주도심 내 하천에서 물고기 폐사가 잇따르면서 광주시의 부실한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풍영정천 사랑모임' 김용재 대표는 4일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사전에 폐기물 등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다"면서 "풍영정천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남산단에서 들어오

는 폐수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풍영정천 오염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하남산단에 대한 실태 조사와 사전방지책이 연계돼야 하는데 광주시와 하남산단간 논의도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권과도 연결

돼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산단에 대한 관리감독과 실태조사가 지금이라도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관계자는 "앞으로는 하남산단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다뤄지고 있고 어떤 과정으로 쓰고 있는지도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급매”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케이볼카 운영시 대박!
- 시세/감정가 - 17억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